

영광군, 친환경 e-모빌리티 해외시장 진출 공략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5개 기업 393만 달러 계약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방문·협력회의 등 추진도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영광군이 해외시장 진출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e-모빌리티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와 수출상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해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합작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방문단은 전남도, 영광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영광 e-모빌리티 기업들로 구성됐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약 2억5000만대 규모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 정부와의 MOU, AISMOLI와의 MOU, 기안아르시, 수카와티 데사와의 MOU 등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동차부품 전시회에는 에이치비, 케이원티에스, 씨에이치모터스 등 9개 기업이 참가했다. 방문 기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방문 및 협력회의, AISMOLI와의 수출 활성화 방안

회의, 케이원티에스(관내기업) 자카르타 현지 공장 견학 등도 진행됐다.

에이치비, 케이원티에스 등 9개 기업이 참여한 수출상담회에는 해외 바이어 18여 명이 참석해 총 106건 3037만달러(약 458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이중 에이비티에스, 이지컴퍼니, 위커, 씨에이치모터스, 케이원티에스 등 5개 기업은 총 393만달러(약 59억원) 규모의 현장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출상담회와 전시회 참가, KOTRA 자카르타와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모빌리티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해외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jkgp99@gwangnam.co.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수출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영광군청

장성, 국가유산 활용 다채로운 전통문화 행사 '눈길'

향교 회혼례·전통음악회 선비문화 체험행사 운영

장성군이 국가유산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군에 따르면 올해 국가유산청 주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돼 장성향교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열린 '장성향교 회혼식 기념행사'와 '선비 풍류 전통음악회'가 주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장성향교 회혼식'에서는 결혼 60주년을 맞은 부부가 전통 혼례 방식으로 회혼례를 치렀다.

행사에는 가족과 하객, 유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부부의 오랜 삶을 축하하고 가정의 의미와 효 사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 향토강 음악힐링축제 본무대에서 '선비의 풍류, 정령의 고장에서 놀다'를 주제로 한 전통음악회도 펼쳐졌다. 지역 전통음악인들의 공연과 함께 관객들이 어우러져 우리 소리의 멋과 선



장성향교에서 결혼 60주년을 맞이한 부부를 위한 '회혼식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제공=장성군청

비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군은 이 밖에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문물여정 1박2일 선비문화 체험여행 △찾아가는 꼬마

홍길동 △천년 역사 우리고을 지키미 △선비의 도시 장성, 세계로 가다 등이다.

군은 학생과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지역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체험형 콘텐츠로 확산시키려는 방침이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국가유산인 장성향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가 현대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강진 병영 한골목 텃밭정원서 '초록씨장' 개최 체험·먹거리·포토존 운영...주민 참여 '활기'

강진군은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병영면 한골목 텃밭정원 일원에서 '텃밭정원 반박시장-병영 한골목 초록씨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텃밭정원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특히 '불금불과 텃밭' 참여 가족들도 행사장을 방문해 체험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행사장에서는 텃밭정원 콘텐츠를 활용한 '텃밭식물 이름표 꾸미기', 식물을 관찰하고 그려보는 '나도 식물화가', 절기(소만) 주제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 식물 페브릭 포토존, 반짝 도서관, 이쿠스틱 라이브 등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쿠폰교환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체험 후 받은 쿠폰으로 나눔 주먹밥과 음료 등을 교환하며 행사 재미를 더했으며, 수제 여성초 비누도 함께 받아갈 수 있도록 구성해 만족도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빵과 토마토 등 먹거리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드 사업을 통해 주민 일상공간인 텃밭정원을 활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공간의 매력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숙 기자 sa43322@gwangnam.co.kr



강진군은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병영면 한골목 텃밭정원 일원에서 '텃밭정원 반박시장-병영 한골목 초록씨장'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강진군청

영암도기박물관, 국보 순회전 8월 2일까지 8점 백제 문양전

영암도기박물관은 오는 8월 2일까지 특별전 '국보순회전,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보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고 국립나주박물관과 영암도기박물관이 공동 주관하는 순회전으로, 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영암도기박물관에서는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을 주제로 백제 유무늬백토를 비롯한 백제시대 문양백토 8점을 선보인다. 전시 유물 가운데에는 보물 지정 문화유산도 포함되어 있어 백제인의 뛰어난 기술력과 미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와 사전으로만 접하던 문화유산을 실물로 관람할 수 있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도 특별한 문화 체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와 연계한 행사도 함께 열린다. 6월 6일부터 7일까지 박물관 일원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현악 공연, 마술쇼, 백제 OX퀴즈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화순,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역량 강화 퍼머컬처 디자인 정원 조성 등 현장 중심 실습 운영

화순군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한 '퍼머컬처 실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퍼머컬처(Permaculture)는 '영구적(Permanent)+농업(Agriculture)+문화(Culture)'의 합성어로, 자연 생태계의 순환 원리를 접목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설계하는 농법이다.

이번 교육은 2024년부터 2년간 운영된 퍼머컬처 이론 과정의 후속 교육으로, 춘산양면에 소재한 화순수도원에서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이론교육에서 직접 구상한 퍼머컬처 디자인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실습에 참여했으며, 자연 순환과 생태적 설계를 몸소 체험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실습 과정에서는 허브 스파이럴과 후글 컬처 텃밭을 조성하고 다양한 작물을 직접 식재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필요한 일부 재료를 교육생들이 직접 분담해 준비하며 협력과 공동체 의미를 더했다.

또한 교육 종료 후에도 교육생들이 조를 나누어 실습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으로,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퍼머컬처 실천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유영민 기자 yjy3355@gwangnam.co.kr

초여름 밤,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음악축제' 나주, 10일 '이전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나주시가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문화축제를 열며 혁신도시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6월 10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24회 이전공공기관 정기 동아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초여름 밤, 빛가람을 잇는 뜨거운 비트'를 주제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음악동아리 등 총 12개 팀이 참여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문화 행사가 마련된다.

무대에서는 최신 K-POP과 대중가요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연에는 HQ SOUND와 아재밴드(한곡전력공사), 헬리오론즈, 악가누리, 사운드랩(한전KDN), 하비스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RCB(한국농어촌공사), TP밴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RedPost(우정정보관리원), 출력해방(한곡전력거래소), 퇴근후밴드, 남윤홍밴드(지역연합) 등 총 12개 팀이 참여해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행사장 일원에서는 공연과 함께 플리마켓도 운영된다.

나주=조희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곡성, 안정적 농촌 인력 운영체계 구축 앞장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계절근로 협력 강화

곡성군이 최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며 농촌 인력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곡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현장 등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하고 근로 관리 체계, 농업 현장의 근로 여건 등을 점검하며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곡성농협, 석곡농협, 옥과농협을 중심으로 라오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87명이 영농 현장에 투입돼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들은 딸기, 멜론, 블루베리 등 노동집약적 작목 농가를 중심으로 배치되

어 본격적인 영농철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문 기간 동안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들은 곡성·석곡·옥과 지역 농협과 주요 농작업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근무 환경과 숙소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농업인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곡성군과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현장 방문을 계기로 상호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